

회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9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2020년 7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 15,777,787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헬어린이집	5,85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2,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100,000	의료비 등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0,675,000	
지원비	노동사목회관	2,4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2,702,787	운영비(행사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15,777,787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20. 08 / 제50호

펴낸날 2020. 08.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수녀님글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위의 기도로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며 새날을 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자연스런 일상의 동반자가 되면서, 사람들 안에서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지키기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기는 코로나로 인해 하느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긴장이나 불안, 불편함과 고통을 더 심화시켜가는, 곧 성령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기운을 받는 사회 속에서, 성령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앙인으로서는 참으로 행복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런 지금 · 여기가, 하느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우리 신앙인들의 하느님께 대한 열정은 더 깊어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욱 크신 은총 안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신비로 우리 일상의 매일 매일이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환자, 난민 그리고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 들을 위한 '베다니아의 집'에서 생활하며, 최선을 다해 운영 관리하며 심터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 업계 즉, 농촌, 어촌, 공장, 도시 서비스업계 등에서는 외국인 즉, 이주민, 난민 노동자 없이는 생필품 생산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우리들 모두는 자신의 고장을 떠나 낯선 곳에 새롭게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이주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다 각자의 상황에서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어려운 환경은 이국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자를 받아서 외국에 나가기 위해 많은 서류 준비와 심사를 거치듯이, 여기 외국인들도 그러한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무엇인가에 희망을 갖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돌보아 주고픈 착한 목자로서의 연민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 피난 온 난민이라는 외국인은 이제 한걸음 더 가까워진 우리의 이웃입니다. 정서와 생활습관, 관습, 종교가 다르다 해도 같은 하느님 아래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인도적 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각국으로 흩어져버린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병과 피곤, 일터와 세상에 힘겨워하는 선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것이다. (마태 22,37-39)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마태 11,28)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베다니아의 집 황 시메온 수녀

공동체 소식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외부 비상계단 수리〉



〈코앤코뮤직〉

신학생 봉사활동 *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신학생 3명이 이주사목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궂은일 마다 않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 김경무 요한마리아비안네 신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교구 김경무 요한마리아비안네 신학생입니다. 이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임금,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돕는 위원회의 모습,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방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묵상해보니 문득 '착한 사마리아인'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라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의 모범인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주민들을 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착한 사마리아인'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송창현 디모테오 신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전농동성당 송창현 디모테오 신학생입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하여 추천받은 마고네에 가는 것을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고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저희를 반겨 주었고, 마치 오늘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일 보았던 사람처럼 허물없이 다가와 주었습니다. 왜 하느님의 나라는 아이들과 같다는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마고네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친동생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제가 아이들에게 더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주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받았고,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소중한 경험은 복학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 김동희 모세 신학생

+찬미 예수님, 서울대교구 김동희 모세 신학생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만큼은 기간을 넘어선 깊고 진한 시간이었고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챙기고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저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늘 마고네를 오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아이들의 티 없는 모습을 보며 도리어 제가 아이들에게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고네라는 작은 공간에서 사랑의 씨앗들이 움터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씨앗이 자라듯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 큰 나무처럼 성장하겠지만 그 안에 여러 사랑들이 함께했음을 돌아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늘 마고네 식구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연재 기획 고선정 자매님 연재글*

저희 위원회의 후원 회원이면서 작가로 활동 중이신 고선정 자매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스리랑카 문화와 이주민에 관한 글을 4개월 간 연재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연재되는 글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의 문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리랑카의 '리틀 로마'

인도양 위의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를 아십니까. 한반도 남쪽의 3분의 2쯤 되는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 2천 2백만 명이 모여 사는 나라 스리랑카는 인도 가까이에서 인더스 문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축적해 온 유서 깊은 나라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지내보면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스리랑카가 아라비아해를 지나는 두 개의 몬순, 즉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기에 쏟아지는 장대비는 우리가 간간이 짓고 사는 죄마저 씻어줄 듯 시원스레 퍼붓지만, 건기에는 또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질 듯 비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후적 특징으로 인해 스리랑카 내륙 곳곳은 수많은 인공 저수지를 끼고 벼이모작이 발달해 있고, 고산지대로는 고품질의 홍차가 재배되며(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론티'의 '실론'이 스리랑카의 옛 이름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계피,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약 70퍼센트가 불교 신자인 스리랑카에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들도 대부분 불교 유적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가 뿌리 깊게 정착하여 현재 스리랑카는 전 세계 불교 신앙의 핵심지이자 불교 성지 순례지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스리랑카에는 가톨릭 신앙의 텃밭인 곳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로 들어가는 국제공항이 위치한 '니곰보'라는 해안 도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니곰보가 작년 부활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니곰보의 성당 두 군데가 IS의 폭탄테러로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어서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고, 그 중 '성 세바스티안 성당'은 테러로 인해 전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290명의 사망자와 5백여 명의 부상자가 거의 두 성당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 타버려 웅하니 뿜린 성 세바스티안 성당의 천장을 통해 쏟아져 내리던 아침 빛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소 전 성 세바스티안 성당〉

스리랑카의 가톨릭은 150여 년간 스리랑카를 지배했던 포르투갈에 의해 정착했고, 성당은 주로 그들이 주둔했던 해변 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니곰보가 스리랑카 가톨릭 교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니곰보 인구의 90퍼센트가 가톨릭 신자이고, 니곰보 안에만 성당이 50여 개 넘게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리랑카 교구의 대다수 주교님이 니곰보 출신이고, 유일하게 추기경님을 배출한 곳도 니곰보입니다. 니곰보로 향하던 버스에서 만났던 '럭키 페레라' 씨는 가족, 친지가 모두 가톨릭 신자이고, 본인도 모태 신앙을 가졌다면 남다른 신앙심과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니곰보를 '리틀 로마'라 부를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가 아니고서야 현대의 어떤 도시에 구석원 90퍼센트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곳이 있을까요. 스리랑카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리틀 로마'라 불릴 만한 도시가 있다는 것에 한편 놀라며 한편 부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좋아 스리랑카를 십수 회 드나들고 여행기를 쓰면서 책의 마지막을 '니곰보'로 마무리한 것은 '리틀 로마'라는 니곰보의 별칭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톨릭 신자인 저에게는 그 이름이 특별히 각인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호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스리랑카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다른 언어와 다른 생김새를 가졌지만 이미 우리의 이웃인 이주민들, 그분들과 우리에게도 과연 어떤 공통점이 존재할는지요.